



대한해운

ISO 14001:2004 인증획득

대한해운(대표 : 이진방, www.korealines.co.kr)은 1월3일 ISO 14001:2004(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를 위해 회사는 환경 관련 서비스의 투명성 향상과 국제 규격에 따른 선진적 환경경영 체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난해 3월1일부터 준비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한국선급의 심사를 거쳐 인증을 완료했다.

이번 ISO 14001:2004 인증을 통해 대한해운은 보다 체계적인 환경오염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특히 대기 오염방지와 폐기물 생성 최소화 및 자원절약 등을 전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대한해운은 국제화에 대비 하기 위한 경영전략으로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2000), 안전관리적합증서(DOC), 선박안전관리증서(SMC) 등의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이 ISO 14001:2004의 추가적인 인증으로 안전, 품질, 환경 전 부문에 걸쳐 고루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한편, 대한해운은 최근 포스코의 '2006 원료부문 우수공급사'에 선정되었다. 포스코는 1월5일 포스코센터 스틸클럽에서 우수공급사의 노력과 협조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포스코의 구매방침을 공유하기 위해 원료, 설비, 자재 부문의 우수공급사를 초청, 신년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로 세돌을 맞았으며, 특히 대한해운을 비롯한 성과가 우수한 협력사에 대해 감사패를 전달, 더욱 돈독한 상호 협력과 발전을 약속했다. 국내 최대 전용선사로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는 대한해운은 지난 1976년 포스코와 장기수송계약을 맺은 이후, 투입 선대를 확장하여 2006년 현재 총 10척의 벌커를 투입, 포스코 물량의 약 30%를 전담하고 있다.

동남아해운

B/L창구 해운센터 본관 1층

동남아해운(회장 임병석)은 고객에게 한층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B/L 창구를 해운센터 본관 3층에서 본관 1층으로 옮겼다. 작년말 이동작업을 시작하여 1월2일부터 B/L 및 D/O발급 업무를 이전된 본관 1층 사무실에서 수행하고 있다.

동남아해운 관계자는, B/L 창구 이동으로 동남아해운을 찾는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SK해운

중소협력사 대표와 신년간담회

SK해운은 1월12일 웨라톤 그랜드 워커히 호텔 에서 총 80개 중소기업 대표 최고 경영자 80명을 초청하여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2006 행복동반자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개최



된 이번 행사는 SK해운과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는 Business Partner와 SK해운 이정화 대표를 비롯한 임원 및 팀장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누고 2006년에도 행복동반자로서 관계를 더욱 돈독히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준비됐다.

SK해운은 지난해 6월 해운업계 최초로 중소협력회사 최고 경영자 70여명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이 두 번째 행사로 중소협력회사와의 발전적인 상생관계를 2006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SK해운의 움직임은 해운업계의 상생의 모습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STX팬오션

홍콩 법인 출범

STX팬오션(대표 이종철)은 1월10일 '아시아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축이 될 홍콩 현지법인(STX PAN OCEAN (HONGKONG) CO.,LTD)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

홍콩 아일랜드 상그리라(Island Shangri-La) 호텔에서 열린 이날 출범식에는 STX팬오션 이종철 사장을 비롯하여 조환복 홍콩 총영사, 마이크 로지(Mike Rowse) 홍콩투자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이종철 사장은 "조정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의 해운시황속에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新상권 개발과 新수익원 창출은 STX팬오션의 균형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과제"라고 전제하고, 홍콩법인은 상해법인과 함께 중국 해운시장 효과적 공략을 위한 전진기 지로서, 운송사업은 물론 LNG터미널 사업, 항만 개발사업, 종합물류사업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TX팬오션은 홍콩 법인 출범식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일본, 인도 등에 현지법인을 추가로 설립할 예정이며, 2007년까지 세계 38개의 주요 거점에 법인 및 신규지사를 설립함으로써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해외현지밀착형 경영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장금상선

직원 국제컨테이너검사자격증 획득

장금상선(대표 정태순)과 관계사 직원 8명이 국제 컨테이너 검사자격증인 'IICL Inspector's Certificate'를 지난해와 올해 획득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업체별로는 장금상선 서울본사와 부산사무소에서 각각 2명, 시노코엔지니어링 3명, 한성라인에서 1명이다. 장금상선은 이들 자격증 취득자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국제 컨테이너/샤시 검사자격증은 국제컨테이너임대사협회(IICL: Institute of International Container Lessors)에서 실시하는 자격 검정 제도로서 이를 획득한 자는 장비 보수의 적합성 판별 및 화물 안전 수송을 위한 장비 이상 유무 확인, 검사 및 까다로운 미국 도로 규정에 적합한 샤시 사용 판별 등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는 것이다.

현대상선

신규인력 채용 확대

현대상선(대표 노정익, hmm21.com)이 회사의 미래 비전 수행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그리고 중장기 해운경기 상승에 따른 사업 확장에 대비하여 신규인력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대상선은 2006년 2월 대학 졸업 예정자 및 기졸업자를 대상으로 지원서를 접수받은 뒤, 서류전형과 면접 및 신체검사를 통해 대졸 신입사원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서는 1월23일(월) 정오까지 현대상선 인터넷 홈페이지(hmm 21.com)의 채용 코너를 통해서만 접수받고, 서류심사 및 1차·2차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하게 된다. 최종 선발된 신입사원은 3월1일부터 회사에 입사하여 교육을 받은 후, 각 부서에 배치될 예정이다.

현대상선측은 이와 같은 신입사원 확충에 대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미래 비전을 수행해 나갈 뛰어난 인재를 조기 확보하고 △글로벌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극적 대응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다가올 해운시황의 호황국면에 대비한 부문별 영업력 강화를 위해 신규 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대상선 채용 담당자는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다보니, 예년에 보면 접수마감 당일 지원자 폭주로 서버가 느려져 지원자들이 고생을 한 경우가 많았다"며, 되도록 마감일 하루나 이틀 전에는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현대상선측은 "신규인력 확보는 해운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고의 수단이므로 글로벌 경영환경에 맞는 우수한 인재를 가능한

최대한 채용할 것"이며, 향후 경쟁력을 갖춘 인력을 수시 채용함으로써 세계적인 선사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인력확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해운

2006년 사업계획 확정

한진해운(대표 : 박정원, www.hanjin.com)은 1월10일 매출액 약 65억2,800만달러, 영업이익 약 5억4,800만달러를 목표로 하는 2006년 사업계획 및 미래 해운시장 환경 변화에 대비 안정적인 재무구조 구축과 지속적인 성장 발전 방향에 대한 사업별 세부계획을 수립, 발표하였다.

2006년 수송량은 컨테이너부분 약 328만 3,000TEU, 벌크부분 약 4,900만 톤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총부채비율을 121%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또한, 수익성 개선 및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신규 선박 및 장비 확보, 터미널 및 수리조선소 사업, 3자 물류사업 확대, IT 인프라 재구축 등에 약 5억 8천만 불을 투자할 예정이며, 전년 대비 2배가 넘는 규모이다.

한진해운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선대확충 및 원가경쟁력 제고, 컨테이너 및 벌크사업 수익성 제고, 신규 물류사업 확대 등으로 핵심 역량을 더욱 강화하며, 3자 물류사업 확대 및 조기 안정화 추진, 수리조선소 설립 등으로 사업 다각화에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변화하는 해운시장 환경에 대비하여 성공적인 경영혁신 추진, 리스크(Risk) 관리 강화 등 조직 및 기업체질 개선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안정적인 재무구조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 발전 방안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 실천하기



로 하였다.

한편, 한진해운은 1월1일부터 스페인 남동쪽에 위치한 발렌시아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에 들어갔다.

발렌시아는 스페인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지중해 및 북아프리카 시장 공략을 위한 주요거점으로 현재 꾸준히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이 지역의 영업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한진해운은 그동안 발렌시아에 영업소를 두고 운영하고 있었으며, 주간 4회 기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이 지역의 물동량이 연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현지법인 설립을 통하여 포르투갈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영업 강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한진해운은 이번에 법인설립을 함에 따라 제노아 등 지중해지역의 주요거점들과 연계하여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물류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물류비용의 투명성제고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한진해운은 향후 아시아, 유럽 등 대리점 영업 조직 일부를 현지법인 또는 지점 등 직접판매조직으로 변경하여 영업력과 고객서비스 강화 및 시장변화에 신속 대응 체재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KL-Net

조직개편 단행

세계적인 물류IT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한국물류정보통신(대표 : 박정천, KL-Net)은 1월1일자로 해외사업부 신설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중국 EDI서비스 등을 담당할 해외사업부를 신설하여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는 KL-Net의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사업부제는 유지하되 일부 사업부의 부서장을 교체하고, 컨테이너터미널운영시스템(ATOMS)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기술개발 2팀을 신설하였다. 이로써 KL-Net의 조직은 2실, 4사업부, 1연구소, 1지사 체제로 운영된다.

이에 앞서 KL-Net은 2006년도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20명의 신입 및 경력직원을 채용한 바 있어, 새해부터 '세계적인 물류IT 전문기업'을 향한 도약이 주목된다.

신설된 해외사업부의 부서장에는 이경환 부장이, e-Biz사업부장에는 백승진 부장이, 경영지원실장에는 이철희 차장이 각각 임명되었으며, 문백기 연구소장, 이원준 전략기획실장, 김진식 전자물류사업부장, 한철의 SI사업부장, 김종렬 부산지사장 등은 현재의 보직을 유지한다.



[업계 인사이동]

고려해운

정기 승진인사

고려해운(대표 최영후)은 1월2일 김창열 차장을 부장으로 승진발령하는 등 정기승진인사를 단행했다.

△부장 : 김창열(기획관리부 총무팀장), 박철균(기획관리부 인사팀장 겸 품질관리팀장), 주봉운(선박관리부 1선대팀장) △차장 : 홍성규(기획관리부 기획팀장), 심우진(운항관리부 기기관리팀장), 심찬우(컨테이너영업부 수출영업팀), 강한규(컨테이너영업부 수입영업팀), 홍원표(컨테이너영업부 마케팅팀), 이상우(컨테이너영업부 프라이싱팀), 강석봉(안전관리팀장), 이진욱(선원관리부 인력관리팀장), 김성준(상해사무소장), 남성우(부산사무소 영업부 영업팀) △과장 : 송인수, 유용재, 김성균, 엄관석, 김세일, 곽희석 △대리 : 이상엽 외 총 5명 △계장 : 김태경 외 총 7명

삼선로직스

허현철 부사장 사장 승진

삼선로직스는 1월1일부로 허현철 대표이사 부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선임했다. 허현철 대표이사는 1960년생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1988년 삼선로직스에 입사한 후 국적선사 간부 중에 가장 빨리 대표이사에 오르는 기록을 남겼다.

허현철 대표이사는 IMF 사태 이후 어려움에 빠졌던 회사를 2001년말에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경영을 완전히 정상화를 시켰고 2004년도에는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뛰어난 경영실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장금상선

정기 승진인사

장금상선(대표 정태순)은 임직원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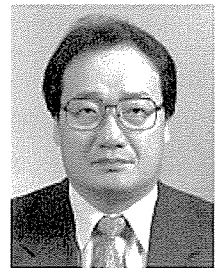
△이사 : 정연심, 이만구(영업본부) △부장 : 양주화(인천), 구현철(청도) △차장 : 임양호(영업본부 수출), 양경돈(부산 품질), 최동수(부산 해사) △과장 : 장희원, 박철현, 류민호, 박용환, 류지하, 황승인, 박성용 △대리 : 김중현, 이동훈, 오광석, 박형중, 이은주, 이미정 △계장 : 박연우, 정상근, 양지숙, 이혜영, 김점미

태영상선

홍덕기 부사장 임명

태영상선(대표 박영안)은 2006년 1월5일부로 홍덕기씨를 부사장으로 임명했다.

홍덕기 부사장은 범양상선 상무를 역임하고, IMC 싱가포르 영업담당 임원으로 재직한다. 홍덕기 부사장은 "태영상선의 새로운 도약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홍덕기 부사장

(주)한진

정기 임원 승진인사

(주)한진(대표 이원영)은 40대 임원을 대거 승진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2006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임원 승진) △전무 : 우점덕 △상무 : 유봉조, 신연철 △상무보 : 이창호, 장지호, 이기동, 신환산

한진해운

정기 임원인사 단행

한진해운(대표 박정원)이 김명식 상무보와 최영배 상무보를 상무로 승진시키는 등 2006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임원 승진) △상무 : 김명식, 최영배 △상무보 : 김성영, 김영기, 김영민, 김철호, 정은조

현대상선

정기 승진인사

현대상선(대표 노정익)은 임직원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전무 : 김중현(구주현지법인) △상무 : 김재선(홍콩현지법인), 한웅섭(컨테이너영업본부), 김중권(컨테이너영업본부) △상무보 : 이주선(멜버른지점), 박영간(안전관리실), 신현중(상해지점), 임종기(구주현지법인), 강호경(아주영업부), 정한기 △부장 : 박대봉(보험법제부), 김병욱(인도법인) △부장대우 : 김홍인(홍보실), 신덕호(기기관리부), 박동주(운영부), 송낙철(업무부), 이종진(), 김석희(일반화물선부), 최석규(총무부), 변천봉(자재부), 김상국(), 박종만(비상계획부), 석한징(안전관리관실), 김규봉(CUT), 최장호(홍콩법인) △차장 : 맹년호(구주영업부), 이주명(아주영업부), 박종필(운항부), 박석우(기기관리부), 송용선(항만물류부), 엄정수(미주수출부), 주경호(구주수출부), 안명도(아주수출부), 이영훈(운영부), 이영부(영업부), 이기원(업무부), 정봉수(), 홍창기(LNG선부), 이정훈(일반화물선부), 정명훈(), 서창배(인천사무소), 이수복(회계부), 윤한석(재정부), 구윤수(지사지원실), 정재경(HMMA), 이용행(HASA HQ), 이효성(뱅크버지점), 김경훈(PCSC PHX), 김이섭(동서남아본부), 김기태(), 최영순(), 이휘원(), 김한중(태국법인), 김용상(인도법인), 유지현(중국본부), 이종배(홍콩법인) △과장 : 최영수, 김영대, 변형주, 정수조, 임종석, 김문철, 박희성, 정원섭, 김영민, 류재오, 전강호, 이수형, 길재수, 김원수,

정해익, 소우영, 석현호, 조한승, 김맹동, 김지식, 김병수, 정재웅, 오승은, 우경진, 박신호, 신용원, 주봉덕, 홍영기, 권영주, 박상훈, 김성열, 임석도 △대리 : 오승열, 정우영, 장인권, 양병철, 조태연, 강동균, 김영오, 김상길, 강상길

흥아해운

주재원 발령 등 인사이동

흥아해운(회장 이윤재)은 수출영업팀 진영이 차장을 일본본부 동경사무소장에 발령내는 등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주재원 발령)△ 일본본부 동경사무소장 : 진영이 차장 △싱가폴사무소장 : 이진철 과장 △중국본부 상해사무소 조은범 과장 △수입삼국간영업팀 : 오홍 차장 △수출영업팀 : 김석진 계장

(팀장발령)△수입삼국간영업팀장 : 박문규 부장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

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장 유명윤)은 1월5일 연수원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을 시행했다.

△교육연구처 교육연구처장 교수 구자윤, 기획연구팀장 조교수 정대율, 직무교육팀장 교수 윤수원, 양성교육팀장 부교수 송종호, 안전교육팀장 교관 김영찬, 승선실습팀장 교수 이동섭 △고객지원실 고객지원실장 행정1급 황철현, 고객지원팀장 행정3급 황찬호, 시험운영팀장 행정3급 정재효, 영도지원팀장 행정2급 채효석 △전략기획팀장 조교수 장은규 △경영혁신팀장 행정2급 전인수 △경영지원팀장 행정3급 이지우 △인천분원장 행정1급 민홍기 △부설 선박운항기술연구소장 교수 우병구